



고조선의 대외관계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A New Search for Gojoseon's Foreign Relations : focused on the tribute-investiture system

저자 (Authors)	박준형 Park, Jun-Hyoung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95) , 2019.9, 5-32(28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95) , 2019.9, 5-3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969
APA Style	박준형 (2019). 고조선의 대외관계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95), 5-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0/25 13: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조선의 대외관계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박준형*

- I. 머리말
- II. 사료의 한계와 중국 측 사료의 접근 방식
- III. 고조선과 春秋 齊의 관계 - 조공 대 교역
- IV. 朝鮮侯의 稱王과 北州侯
- V. 『詩經』 韓奕篇의 韓侯와 고조선
- VI.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고조선 관련 중국 측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공책봉으로 표현되는 고조선과 中原諸國의 관계는 대등하였던 점을 살펴 보았다.

중원왕조는 주변 이민족과 관계를 조공책봉이란 용어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중원왕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 겸 군사전략학과 교수

대표 논저 :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백산학보』 106 ; 2018 「예·맥 관련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112 ; 201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조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고조선은 주왕실과 北州侯의 일원으로서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제한공은 고조선과의 관계를 조공관계로 보았지만 고조선은 실질적으로 제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기원전 4세기 후반 朝鮮侯가 燕에 대항하여 稱王할 수 있었던 것은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가 춘추시기 이래로 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주 후기 追滅·貉을 다스렸던 北國의 伯인 韓侯는 예맥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북주후의 일원이었던 조선후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제어 : 古朝鮮, 朝貢冊封, 朝鮮侯, 北州侯, 稱王

I. 머리말

근대 역사학이 수용된 이후 고조선사 연구는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중심지와 강역, 종족, 사회성격, 교역[교류] 및 대외관계, 고고문화 등 거의 모든 주제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 이 중 대외관계를 전문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²⁾ 물론 관련 사료의 대부분이 중국 측 문헌³⁾에 수록

1) 고조선사연구회·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2018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재정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 박대재, 2006 「고조선과 연·제의 상호관계」 『사학연구』 83 ; 박준형, 2013 「고조선의 춘추 제와 교류 관계」 『백산학보』 95 ;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백산학보』 106 ; 박준형, 201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들 수 있다.

3) 『管子』·『戰國策』·『山海經』 등 先秦文獻과 『史記』·『漢書』 朝鮮列傳, 『三國志』 인용 『魏

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대외관계를 염두에 두고 고조선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는 점도 있다.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고조선과 中原諸國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고조선만을 대상으로 대외관계를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고대 한중관계사 전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진 차등적 개념을 내포한 외교형식인 조공책봉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관계는 漢代 이후에 중원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다양하게 차용·변용되었으며 근대 이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일본학계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책봉국인 중원왕조와 피책봉국인 주변국과의 관계로 보는 ‘책봉체제론’[‘동아시아세계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책봉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제질서의 역동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미체제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 또한 국제관계를 중원왕조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책봉체제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⁴⁾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공책봉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변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조공관계론이 제기되었다.⁵⁾ 대체로 조공은 서주시기 중원제국 사이에서 시작된 조공책봉관계가 점차 주변국까지 확산되어 한대에 이르러 정형화된 것으로 보았다.⁶⁾ 조공은 책봉과 달리 그 주체에 있어서 한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관심을 끌어들였다.

略」등 正史.

- 4) 여호규, 2019 「한국 고대사에서의 조공·책봉관계」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 5) 이 부분은 박대재의 글(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6) 전해중, 1966 「한중조공관계고」 『동양사학연구』 1 ; 이춘식, 1969 「조공의 기원과 의미」 『중국학보』 10 ; 김한규, 1981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 방향숙, 2005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한중 간 조공의 의미를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혜택의 측면에서 찾는 견해⁷⁾가 있었으며 이와 달리 조공제도 존립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⁸⁾고 보는 원론적인 의미가 제시되었다. 한편 중국적 천하질서 속에서 자아를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조공의 실리외교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⁹⁾

이처럼 한국 연구자들은 고구려·백제·신라가 조공을 통해 경제·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책봉보다는 조공에 초점을 맞추어 한중관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런 점만을 강조하면 한중간의 조공관계가 삼국의 주체적인 입장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¹⁰⁾ 한편 한대 이후 조공관계가 ‘실질적 조공관계’에서 ‘형식적 조공관계’로, 나아가 ‘擬似的 조공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점에서 고대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고대 동아시아 사료에 나타나는 조공을 일률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¹¹⁾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후 고구려의 사례를 통해 중원제국과 맺은 조공책봉관계가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국제관계의 다원적 질서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보았다.¹²⁾

최근에는 조공·책봉이 시공간을 초월해 확인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자국의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관련 기록도 매우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조공·책봉이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논하기에 유효한 개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7) 김상기, 1948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87 「조공의 경제적 의미」 『고대한중관계사의 연구』, 삼지연.

8) 전해중, 1966 앞의 논문.

9) 신형식, 1978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한국사론1-고대편-』, 국사편찬위원회.

10) 노중국, 1985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49.

11) 서영수, 1987 「삼국시대 한중외교의 전개와 성격」 『고대 한중관계사의 연구』.

12) 여호규, 2006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2019 앞의 논문; 박대재, 2007 앞의 논문.

다. 따라서 동아시아세계가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가 아닌 복수의 지역(국제)질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세기 이전[한대 이전] 한중관계도 그런 복수의 질서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즉, 한군현 설치 이전에 고조선을 중심으로 진번·임둔을 포함하는 세계, 흉노를 비롯한 오한·선비의 세계, 그리고 연·제에서 시작되는 중원세계가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중층적 구조 속에서 한중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기존 견해가 일본학계나 중국학계의 논리를 반박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에 비해 이 견해는 향후 고조선 대외관계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동북아역사재단(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의 대외관계 및 외교사를 통사로 간행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8년 12월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의 고려·조선·근대편을, 이어서 2019년 5월에 고대편을 발행하였다. 이 중 고대편은 그 동안 일본학계와 중국학계의 공격적인 논리에 대한 방어를 넘어 한국고대사의 입장에서 ‘대외관계와 외교’를 서술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대편의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외교」에서는 춘추시기부터 한대까지 고조선이 중원제국과 맺은 조공책봉관계의 실질적 의미와 변화과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¹⁴⁾

그간 고대 한중 간의 외교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이었으며 고조선은 부수적으로 취급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對중원 관계가 고조선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논의의 시작은 고조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삼국시대에 형성된 한중관계의 인식틀을 거꾸로 고조선에 소급해서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

13) 김병준, 2010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14) 박준형, 2019 앞의 논문.

고조선의 대외관계사가 연구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은 1차적으로 관련 사료의 절대적 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 측 문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 측 시각을 교차 검증할 만한 국내측 기록이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부진을 이러한 객관적인 사료 탓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고 본다. 사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했어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한중 외교관계를 표현하는 중국 측 개념인 조공을 바라보는 국내 연구자들의 시각을 지적하고 싶다. 기존 논의에서는 조공의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상하·주종 관계를 깔고 있는 중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상하 관계를 상징하는 ‘고조선의 문피’와 같은 조공품을 대등한 교역품으로 인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고조선이 춘추 五霸의 하나였던 齊와 대등한 교역을 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는 다소 민족주의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¹⁵⁾

조공은 책봉과 짝을 이루는 개념인데 조공을 경제·문화적 요소로만 접근했을 때, 고조선이 왜 중원중심의 조공관계를 받아들였으며 그러한 조공관계를 통해서 양자가 얻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책봉(호)을 통해 고조선이 중원사회에서 갖는 정치·외교·국제적 위상에 대해 접근하고 나아가 고조선의 국가발전단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고조선이 중원제국과 불평등한 조공관계를 맺은 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물론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다. 다

15) 김철준, 1977 「고조선사회의 정치세력의 성장」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 김정배, 1997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pp.139~140 ; 서영수, 1999 앞의 논문, pp.106~108.

만 그러한 관계를 교차 검증할 만한 국내측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기록을 남긴 중국인들의 시각을 따라 사료를 검토해 보고 이를 다시 古朝鮮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고조선의 對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고조선이 稱王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원제국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연구의 ‘모색’ 단계인 만큼 논리의 비약이 심할 수밖에 없다. 많은 질정을 부탁한다.

II. 사료의 한계와 중국 측 사료의 접근 방식

고조선 관련 한국 측 사료로 가장 이른 것은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왕검조선]조와 위만조선조이다. 전자의 대부분은 단군신화와 관련된 것으로 말미에 기자 동래와 한군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위만조선조는 『한서』 조선열전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고기』에 수록된 단군신화를 제외하면 고조선 관련 사료는 대부분 중국 측 기록을 옮긴 것이다. 『고기』에 의하면 고조선은 중국 요임금 시기인 기원전 2,333년에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왕검이 평양성[후에 백악산 아사달로 옮김]에 세운 나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고기』에 수록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사를 전조선-후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3조선 체계로 정리되었다. 이후 『동국사략』(1403)에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체계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3조선 체계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전기 관찬사서에 수용되면서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고조선사 인식체계의 기본적인 흐름은 한말까지 지속되었다.¹⁶⁾

해방 이후 한국학계에서 단군조선 시기의 실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기자동래설이 부정되면서 더 이상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면 조선왕조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古’조선이라고 부른다. 『삼국유사』처럼 위만조선 이전만을 고조선이라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고조선이라고 하면 위만조선을 포함한 ‘옛 조선’의 의미로 사용된다.

현전하는 고조선 관련 사료 중에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측 기록만 남게 된다. 서지학적 논란이 많은 『관자』를 제외한 선진문헌에 고조선이 언급된 것은 『전국책』¹⁷⁾과 『산해경』¹⁸⁾뿐이다. 이들 문헌을 통해서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현대 문헌으로는 『사기』 조선열전이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시대 고조선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위만조선과 관련된 것이다.¹⁹⁾ 사마천이 조선열전을 편제한 것은 위만조선이 한의 外臣이었기 때문이었다.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에는 기원전 4세기 후반 稱王하면서 연에 대항한 고조선, 진개의 침략, 위만의 집권과정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료적 상황에서 고조선사를 재구성할 경우에 고조선의 시간적 범위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멸망까지이다. 여기에 『관자』 규탁편과 경중갑편의 고조선 관련 기록을 춘추시기의 전승이 반영된 전국시기 이후의 기록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²⁰⁾ 그 상한

16) 박대재, 2018 「고조선사 체계의 재인식」 『한국학논총』 50.

17) “蘇秦將爲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 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戰國策』 권29, 燕策1).

18) “蓋國在鉅燕南 倭北 倭屬燕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山海經』 海內北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天毒 其人水居 佷人愛之” (『山海經』 海內北經).

19) 『사기』 송미자세가의 기자동래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20) 김철준, 1990 앞의 논문, p.124; 김정배, 1997 앞의 논문, pp.139~140; 서영수, 1999 앞의 논문, pp.106~108; 송호정, 2003 앞의 책, pp.92~94; 박준형, 2004 「고

은 기원전 7세기 중반까지 올라간다.

이런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선진문헌에 보이는 예·맥에 주목하여 위만조선 이전을 ‘예맥조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¹⁾ 『시경』 한혁편을 통해 서주시기 예·맥과 한후를 상정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요령~길림지역의 예·맥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또한 『관자』 소광편의 예맥을 통해 기원전 7세기대 예맥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관자』의 서지학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일주서』 왕회해편의 예인·발인을 통해 서주초기 예맥의 실체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서지학적인 문제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對중국관계를 논하기 위한 사료의 시간적 한계는 『관자』를 인정할 경우에 기원전 7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2세기 말까지이다. 고조선의 종족 구성을 이루었던 예맥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시경』 한혁편의 해당 시기인 周 宣王代(기원전 827~782년)로 서후 후기까지 볼 수 있다. 이 시간적 범위는 비단 고조선의 대중국관계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군신화를 제외할 경우 고조선사 대상 범위와 맞물리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 측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원전 7세기 중반[혹은 서주 후기]을 고조선사의 상한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중국인의 인식상에 포착되어 문헌에 남아 있는 상한일 뿐이지 고조선의 실제 상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조선이라는 실체가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기록도 고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他者인 중국인들의 시각에 의해 걸러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간혹 중국 선진문헌에 보이는 고조선의 상한을 고조선의 성립

조선의 대외교역과 의미-춘추 제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pp.65~69; 박준형, 2018 「예·맥 관련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112, pp.17~19.

21) 김정배, 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pp.23~24.

(혹은 등장)과 등치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적 시각에 경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군신화를 제외한 상태에서 고조선의 대중국관계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었던 중국 측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정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조선사는 중국 측 시각에 간헐 위험이 대단히 높다.

고조선과 중원제국과의 외교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중국인이 남긴 사료 상에 대부분 ‘朝[朝貢]로 되어 있다. 『위략』에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인 朝鮮侯가 칭왕한 부분에서도 중원제국으로부터 받은 책봉호인 (조선)후로 되어 있다. 『관자』 경증갑편에서는 제환공이 왜 고조선이 朝覲[朝貢]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조공품인 문피를 비싼 값에 쳐주면 조근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피책봉국의 조근이라는 정치적 요소보다는 조공이라는 경제·문화적 요소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칭왕 이전에 왜 후였으며 그 후가 어떤 정치·외교적 의미가 있었는지, 왜 고조선의 특산품이 완제품이 아닌 반소재 형태인 문피로 교역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조선과 중원제국의 외교관계인 조공책봉관계는 중원인이 만든 용어인 만큼 먼저 그 조공책봉의 원리 속에서 1차적으로 사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국제관계에서 고조선이 갖는 정치적·외교적 위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조공책봉관계가 중국 중심의 불평등한 국제질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변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가 단지 조공책봉이란 용어로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혀야만 한다.

물론 전자의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중국적 시각에 매몰될 수가 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의 對중국 관계에서는 한국 측 사료로 교차 검증이 가능하며 타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조

선은 중국 측 기록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자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후대의 조공책봉관계 연구에서 나온 성과를 적용했던 것이다.

이하 이 글의 각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면서 고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고조선이 춘추 제와 맺었던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서 전국시기 조선후가 칭왕하는 의미를 다시 새겨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조선 최고 통치자가 언제부터 후를 칭했는지 그 연원을 따져 본다는 의미에서 『시경』 한혁편의 한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고조선과 春秋 齊의 관계 - 조공 대 교역

『관자』의 고조선 관련 기록이 춘추시기 사실을 반영한 전국시기 이후의 기록이라는 견해²²⁾를 받아들인 많은 연구자들이 『관자』 규탁편과 경중갑편을 통해 고조선의 문피가 증원사회에서 7대 보폐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고조선이 춘추 제나라와 문피교역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관자』 경중갑편에 나오는 ‘(不)朝’를 朝貢 즉, 조공무역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²³⁾

朝에 조공의 의미를 포함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朝(貢)가 가지는 정치·외교적 의미를 배제한 채 경제적인 조공무역 관계로만 본 것²⁴⁾이 과연 고조선과 춘추 제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조공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대등

22) 『관자』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박준형, 2004 「고조선의 대외교역과 의미-춘추 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pp.65~69.

23) 김철준, 1990 앞의 논문, p.124 ; 김정배, 1997 앞의 논문, pp.139~140 ; 서영수, 1999 앞의 논문, pp.106~108.

24) 김상기, 1948 앞의 논문 ; 이춘식, 1969 앞의 논문.

한 (교역)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²⁵⁾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논증보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조공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자』 경중갑편의 해당 기록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桓公이 “四夷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정치가 천하에 퍼져서 그런 것으로 이로 인해 과인이 상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를 위해서 과인이 행할 방법이 있겠소”라고 물었다. 管子가, “吳·越이 朝覲하지 않는데 청컨대 珠象을 폐물[幣]로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發·朝鮮이 조근하지 않는데 청컨대 文皮·毳服을 폐물로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禺氏가 조근하지 않는데 청컨대 白璧을 폐물로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崑崙이 조근하지 않는데 청컨대 璆琳·琅玕을 폐물로 삼는 것은 어떻습니까? 쥐어도 손에 보이지 않고 머금어도 입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치가) 천금을 넘어서는 것이 珠입니다. (값을 제대로 계산해 준다면) 8천리 떨어진 오·월도 조근할 것입니다. 한 장의 표범 가죽으로서 천금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文皮·毳服입니다. (값을 제대로 계산해 준다면) 8천리 떨어진 발·조선도 조근할 것입니다. 품어도 가슴에 드러나지 않고 끼어도 겨드랑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천금을 넘어서는 것이 白璧입니다. (값을 제대로 계산해 준다면) 8천리 떨어진 禺氏도 조근할 것입니다. 비녀·귀걸이로 천금을 넘어서는 것이 璆琳·琅玕입니다. (값을 제대로 계산해 준다면) 8천리 떨어진 崑崙도 조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한 활동[事]이 연결되지 않고, 원근의 나라가 서로 통하는 것이 없으면 四夷는 조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²⁶⁾

25) 박준형, 2016 앞의 논문.

26)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游於天下而傷寡人 寡人之行 爲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毳服而以爲幣乎 禺氏不朝 請以白璧爲幣乎 崑崙之虛不朝 請以璆琳琅玕爲幣乎 故夫握而不見於手 含而不見於口 而辟千金者 珠也 然後八千里之吳越可得而朝也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

위 내용을 엄밀히 읽어보면 제환공과 관중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고조선·오월 등이 조근하러 오겠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의 특산품을 비싼 값을 쳐주면 자연스럽게 조근해 올 것이라고 되어 있다. 관중은 이민족과의 정치적인 관계[조근]를 경제적인 관계[교역 : 조공]로 풀고자 했다. 조근[조공]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점에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근[조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대등한 교역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고조선은 중원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적인 외교적 관계를 받아 주면서 비싼 값에 문피를 팔았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²⁷⁾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조공은 바로 책봉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조선이 춘추 제와 교역[조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원사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책봉이 따라야만 한다. 여기에서 고조선이 춘추 제의 조공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조선이 춘추 제와 어떠한 자격[책봉호]으로 조공[교역·조근]했을까”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관자』 경중갑편에 언급된 고조선의 문피 관련 사료이다. 이것은 기원전 7세기 중반에 고조선이 중원사회에서 갖는 정치·외교적 위상과 맞물린다. 나아가 고조선이 받았던 책봉호를 통해 고조선의 발전단계를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관자』 경중갑편에서는 고조선이 받은 책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춘추시기 주변 이민족이 중원제국과의 관계에서 책봉호를 갖고 외교를 수행했던 無終의 사례가 주목된다. 『춘추좌씨전』 양공 4년조에

也 懷而不見于抱 挾而不見掖 而闕千金也 白璧也 然后八千里之禹氏可得而朝也 簪珥而辟千金者 璆琳琅玕也 然后八千里之崑崙之虛可得而朝也 故物無主 事無接 遠近無以相因 則四夷不得而朝矣” (『管子』 권23, 輕重甲).

27) 박준형, 2013 앞의 논문, pp.54~61.

無終의 군주인 子爵 嘉父가 孟樂을 쫓아 사신으로 보냈다. 그리고 魏莊子(魏絳)에게 부탁해 호피·표피를 올리고 쫓아 諸戎과 화친하기를 청했다. … 쫓아낸 공이 크게 기뻐하며 위강을 보내 諸戎과 결맹하게 했다. (『春秋左氏傳』襄公 4년)²⁸⁾

위 기록은 기원전 569년 융족계통인 무종이 쫓아낸 화친 관계를 맺고 진에 조근하게 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북방 이민족이 중원의 제후에게 조근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종의 군주인 嘉父는 이미 子爵을 받았던 상태였다. 물론 이 책봉호는 진이 아닌 주왕실에서 받은 것이다. 무종은 진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외교 행위를 이 책봉의 자격으로 했던 것이다.

중원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종은 융족계통 북방 이민족 세력의 하나였다. 고조선은 융족보다 더 동쪽에 있던 동북방 이민족 세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주왕실에서 어떤 책봉호를 받았을까?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는 없다. 필자는 『관자』 소광편에 제환공의 북벌이 “고죽·산용·예맥에 이르렀다(北至於孤竹山戎穢貉)”고 하는 기록에서 실마리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물론 예맥이 실제 제환공의 북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왜 예맥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제환공의 북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664년 산용이 연을 공격하자 연이 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기원전 663년 6월에 제가 산용 정벌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환공이 산용을 정벌하면서 고죽·영지도 함께 정벌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관자』 대광편을 살펴보자.

28) “無終子嘉父使孟樂如晉 因魏莊子納虎豹之皮 以請和諸戎 … 公說使魏絳盟諸戎”(『春秋左氏傳』襄公 4년).

狄人이 공격해 오자 환공이 제후들에게 말했다. “청컨대 공격받은 나라를 구합시다. …”. 제후들이 모두 허락했다. … 제후국들의 군대가 도착한 뒤 함께 싸워 적인들을 물리쳤다. … 北州의 제후들[北州侯]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제환공은 소릉에서 南州의 제후들[南州侯]을 만나서 말하기를, “狄人是 무도하여 천자의 명령을 어기고 작은 나라[小國]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천자의 故訓을 따르고 하늘의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 침략당한 나라를 구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북주의 제후들은 오지 않았으니 위로는 천자의 명을 듣지 않은 것이고 아래로는 제후들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니 과인은 북주의 제후를 징벌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제후들이 허락했다. 환공이 이에 북쪽의 영지를 징벌하고 峴山에 이르러 고죽을 참하고 산용을 지났다. (『管子』 권7, 大匡)²⁹⁾

위 기록을 엄밀히 따져 보면 제환공의 1차 북벌인 산용 징벌의 대상에 고죽과 영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가 고죽·영지를 징벌하게 된 사건은 기원전 662년 적인이 邢을 공격하고 기원전 660년 다시 衛를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제환공이 宋·曹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적인을 몰아내고 형과 위를 재건하는 것이 기원전 658년에 일단락된다. 이것이 이른바 南州侯 연합군의 활동이다. 패자였던 제환공은 남주후의 연합군으로 적인을 공격할 때 北州侯의 일원이었던 고죽·영지의 참전을 요구했으나 북주후는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환공은 남주후의 연합군을 이끌고 북주후였던 고죽·영지를 징벌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제의 2차 북벌인 고죽·영지 징벌이다. 대체로 제환공의 북벌이라고 하면 산용을 징벌하면서 고죽·영지를 함께 공격한 것을 말한다. 두 개의 사건은 징벌 대상[산용·적인]이나 그 성격에 있어서 전혀 별개이다.

29) “狄人伐 桓公告諸侯曰 請救伐 諸侯許諾 … 諸侯皆許諾 … 戰於後 故敗狄 … 北州侯莫來 桓公遇南州侯于召陵 曰 狄爲無道 犯天子令以伐小國 以天子之故 敬天之命 令以救伐 北州侯莫上 上不聽天子令 下無禮諸侯 寡人請誅于北州之侯 諸侯許諾 桓公乃北伐 令支 下峴之山 斬孤竹 過山戎” (『管子』 권7, 大匡).

그러나 적인의 형·위 공격이 산융이 연·제를 공격한 시점과 비슷하고 후대의 사료에 제환공의 북벌의 범위가 산융과 고죽·영지가 함께 기술되면서 이들이 하나의 사건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³⁰⁾

『관자』 소광편에는 제환공의 북벌이 고죽·산융을 넘어 예맥에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환공의 북벌 대상에 예맥이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제환공의 위업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예맥을 포함시킨 것뿐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맥이 북주후의 일원이었던 고죽·영지와 함께 나열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 중원인들이 예맥을 고죽·영지와 함께 북주후의 일원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예맥사회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이 고조선이었다. 그렇다면 고조선이 바로 북주후 중의 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관자』 경중갑편에는 고조선과 제의 관계가 ‘朝[朝覲]’로 나온다. 춘추시기에 조공은 왕권 혹은 대국과 제후, 이민족과의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였으며 이러한 조공행위는 조근과 빙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고조선과 춘추 제와의 관계는 그 실제적 의미와 상관없이 조공책봉관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자』 경중갑편에서는 대등한 관계였던 오·월까지도 제의 조공국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볼 때 ‘朝’라는 글자의 의미만으로 고조선을 조공국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관중은 고조선의 조공을 유도하기 위해 문피를 고가에 매입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조공이 아니라 조공의 형식을 가장한 대등한 교역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조선과 제의 관계는 중국 측 기록에서 조공책봉이라는 불평등한 개념으로 표현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호 평등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조공품[교역품] 자체의 성

30) 제환공의 북벌과정에 대해서는 박준형, 2016 앞의 논문, pp.65~73.

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공은 서주시기에 제후국이 왕에게, 춘추시기에는 소국이 대국(霸者)에 조회할 때 지참하는 특산품이다. 이 조공품들은 주왕실 관부의 백공들에 의해 가공된 후, 조정에서 천자와 백관이 사용되는 기물로 사용된다. 즉, 사방의 끝에서부터 공납되는 무기물에 가까운 개개의 공물은 왕권과 조정에 집적된 뒤 가공되어 왕권의 제사집행을 통해 그 정치적 신체를 구성하는 유기체 총체로서 재현되고 이것이 조공국에게 재분배되는 것이다.³¹⁾

『관자』 경중갑편에서 제환공은 吳·越에게는 珠, 禹氏에게는 白璧, 崑崙에게는 璆琳·琅玕을, 발·조선에게는 文皮·毳服을 조공받기를 원했다. 이들 물품들이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상태의 재료였다. 조공이 주왕실의 정치질서의 구현의 한 방편이었기에 제환공이 패자로서 주변국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조공이라는 형식을 위해 반소재 상태의 특산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공 관계가 아닌 대등한 교류 관계에서 고조선의 교역품은 어떤 형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前漢 淮南王 劉安(기원전 179~122)이 쓴 『淮南子』 原道訓에는 “以匈奴出穢裘”라고 하여 흉노에서 穢裘[예의 갓옷]가 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²⁾ 『사기』 평진후주보열전에서 고조선 공격을 “略濊州”라고 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濊를 고조선으로 볼 수 있다면 예구는 고조선과 흉노의 교역품이 된다.³³⁾ 여기에서 예구는 예[고조선]에서 생산한 갓옷으로 반소재가 아니라 완제품이다. 이런 점에서 고조선과 흉노의 관

31) 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임대희·문정희 옮김, 2002 『天空の玉座-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pp.186~190.

32) 흉노에서 예구가 생산된다고 한 것은 고조선의 문피가 斥山의 문피로 알려진 것처럼 중계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松田壽男, 1957 『蘇子の貂裘と管子の文皮』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3 ; 윤용구, 1999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漢代 樂浪郡의 交역형태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162 ; 박준형, 2004 앞의 논문, pp.88~89).

33) 최슬기, 2017 『衛滿朝鮮과 匈奴의 ‘穢裘’ 교역』 『선사와 고대』 52.

계는 대등한 관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교역품은 고조선이 제와 교역했던 문피와는 다르다. 이것은 형식적인 조공관계에서 반소재로서 교역품과 대등한 교류 관계에서 완제품으로서 교역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고조선과 제의 관계에서 조공이라는 형식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역관계로만 접근했을 때 기원전 7세기 중반 고조선의 실상과 대외적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인들에 의해 남겨진 사료를 통해 고조선에 접근할 때에는 중국적 시각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필요하다.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살필 때 더 이상 ‘朝’를 ‘종속’이라는 관념 속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자는 고조선이 중원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조공 관계를 위해 후의 자격으로 제와 문피교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다.

IV. 朝鮮侯의 稱王과 北州侯

『삼국지』한전에 인용된 『위략』에는 기원전 323년에 燕이 칭왕하자 고조선도 칭왕하면서 연에 대항했던 내용이 나온다.

옛날 기자의 후손인 朝鮮侯는 周가 쇠미하여 燕이 스스로를 높여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고 하자,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사를 일으켜 연을 공격하여 周室을 받들려고 하였다. 그 大夫 禮가 諫하여 그만두었다. 예를 서쪽으로 보내 연을 설득하니 연도 중지하고 조선을 공격하지 않았다.³⁴⁾

34)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 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위 기록을 통해 고조선이 칭왕하여 전국 연에 대항할 정도로 고조선의 국력이 강했던 점을 강조한다. 이 사료에서 기본적으로 ‘稱王’에서 王이라고 하는 최고통치자의 존재가 있고 大夫라고 하는 官名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인 관료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군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왕의 존재는 고조선을 국가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또한 기원전 5세기 경 당시 최고 수준의 청동기를 부장한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42종 797건)는 주변 세력과 차별화된 권력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래서 후기비파형동검문화의 정가와자유형의 핵심세력을 이후 칭왕했던 고조선과 일치시켜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기원전 4세기 말에 고조선이 국가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다.³⁵⁾

일반적으로 왕의 존재를 국가의 핵심적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칭왕하기 이전 고조선은 국가가 아니었던가? 위 사료는 중국인에 의해 남겨진 사료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당시 전국시기 중원사회에서 칭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국 사이의 경쟁이 심하던 시기에 중원제국은 더 이상 주왕실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王天下’하겠다는 의미로서 칭왕했다. 그래서 칭왕 이전 각국의 최고 통치자가 公·侯였다고 해서 연·제 등을 국가 이전 단계로 이해하지는 않는다.³⁶⁾

『위략』의 사료를 중국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칭왕 이전의 고조선을 후가 통치하는 국가, 중원 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연과 대항했던 국가로 이해했던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한국 연구자들은 정치체의 최고 통치자인 왕의 존재를 인류학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국가 성립의 중요

35) 송호정, 2003 앞의 책, pp.280~285 ; 박대재, 2005 「고조선의 ‘왕’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pp.161~169.

36) 박선미, 2018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p.29.

한 기준인 왕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측면에서 이 사료를 접근했을 때, 칭왕 이전 ‘후’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특히 해방 이후 기자조선이 강하게 부정되는 상황에서 ‘箕子之後朝鮮侯’의 (조선)후는 기자동래설에 의한 중국적 윤색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즉, 후를 버리면서 왕만 취하고 후에서 파생되는 중원제국에서 칭왕의 의미보다는 고조선의 국가발전단계를 설명하려는 ‘인류학적 의미’로서 왕의 존재에 집중했던 것이다.

『위략』의 내용을 중국적 시각에서 다시 살펴 보면 “주왕실의 책봉을 받은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가 전국시기 다른 열국처럼 왕을 칭하면서 연에 대항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기자의 후예라고 한 부분은 기자동래설에 의해 부정된 이상 후대의 윤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이 칭왕 이전에 주왕실로부터 후로 책봉 받았던 사실만 남는다.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의 책봉은 외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고조선의 시각에서 본다면 고조선은 중원제국과 외교관계[조공]를 맺으면서 교역할 때 후의 자격이었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칭왕 이전의 조선후와 Ⅲ장에서 살펴 본 북주후는 어떤 관계일까? 전국시기에 칭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후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고 열국 사이의 국제적 공인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조선이 칭왕하기 위해서는 열국 사이에서 후의 자격으로 공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부터 후의 자격을 얻었을까? 필자는 『관자』에 언급된 북주후의 일원으로서 언급된 예맥, 예맥에서 성장한 고조선이 후로서 중원세력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그것이 『위략』에서 조선후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V. 『詩經』 韓奕篇의 韓侯와 고조선

이제까지 고조선은 북주후의 일원[조선후]으로서 춘추 제와 대등한 교류 관계를 맺었으며 전국시기에는 이런 조선후가 칭왕하면서 연에 대항하였던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부터 주왕실로부터 후의 자격을 얻었을까?

『관자』 경중갑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패자로서 제환공은 四夷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문제[“四夷不服”]에 대해 질문하고 관중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중은 吳·越에게는 珠를, 禹氏에게는 白璧, 崑崙에게는 璆琳·琅玕을, 발·조선에게는 文皮·毳服을 폐물[幣]로 가져오게 하여 비싼 값을 쳐주면 자연스럽게 조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환공이 패자가 되기 이전에는 주변 이민족인 사이가 주왕실에 조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왕실을 대신한 패자로서 제환공이 주변 이민족과 새롭게 조공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왕실에 조근했던 이민족이 자신이 패자가 되자 조근하지 않게 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기』 봉선서에는 제환공이 주왕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봉선하려고 했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봉선을 위해서는 주변 이민족의 조공이 필수적이었다. 『관자』 경중갑편은 봉선을 위한 이민족의 조공을 경제적으로 풀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관중의 만류로 봉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제환공대 이전에 주변 이민족이 주왕실과 형식적인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부터 주왕실에 후의 자격으로 조공관계를 맺었을까?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다만 필자는 『시경』 한혁편의 한후가 고조선의 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시경』 한혁편에는

저 웅대한 韓城, 燕帥가 완성해 주었네.
 네 선조가 명을 받아 百蠻을 관리하였도다.
 왕이 韓侯에게 다시 명을 내리니 追와 貉을 복속하여
 北國을 어루만지는 명을 받아 그 伯이 되시니
 성을 쌓고 해자를 파고 밭을 다스리고 세금을 정하였으며
 왕에게 비가죽[貔皮]과 붉은 표범[赤豹], 누런 말곰[黃羆] 가죽 바치었네.³⁷⁾

라고 되어 있다. 周 宣王代(기원전 827~782년) 韓侯를 再冊命한 것을 노래한 시 중에서 마지막 6소절 부분이다. 내용 중에 燕帥가 쌓은 韓城과 追[濊]·貉을 다스린 한후가 나온다. 연나라 백성이 쌓은 한성의 위치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鄭玄이 제기한 陝西省 韓城說과 王肅이 제기한 河北省 固安縣說로 대별되며 여기에 연의 위치문제[南燕 혹은 北燕]까지 더해지면서 논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 한후가 姬姓 제후인지 고조선의 왕·칸(khan, 干)인지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³⁸⁾

최근 이러한 논쟁을 정리한 심재훈은 어느 한 설을 지지하기보다는 여러 견해의 최대공약수를 설정하면서 한의 실체에 접근하였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견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는 한혁편은 서주 후기 선왕대로 한이 연국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면서 한의 위치를 연의 北西와 北東쪽까지 포함한 현재의 하북성 북부나 요령성 서남부 정도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한을 어떤 특정 세력[희성제후국이나

37) “溥彼韓城 燕師所完 以先祖受命 因時百蠻 王錫韓侯 其追其貉 奄受北國 因其伯 實塢實壑 實畝實籊 獻其貔皮 赤豹黃羆”(『詩經』大雅 韓奕)

38) 한성의 위치문제에 대한 논쟁은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한 모색-『詩經』“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 박대제, 2013 「『詩經』의 追와 貉」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pp.36~48 ; 오현수, 2013 「『詩經』“韓奕”편의 韓城과 韓侯」 『백산학보』 96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고조선 혹은 기자조선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서주 후기 하북성 북부나 요령성 서남부에 존재했던 非周 주변부 정치체의 하나로 보았다.³⁹⁾

그가 한후를 고조선 혹은 기자조선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은 섬서성~하북성 북부지역에 있던 추·맥이 요동지역에 있던 후대의 예·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관자』를 기원전 1세기 말 劉向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7세기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⁰⁾ 또한 그는 한대에 성립된 기자동래설로 기자조선이란 실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을 하북성 북부나 요령성 서남부로 본 견해는 탁견이라고 본다.

대체로 추·맥의 위치는 한성의 위치와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성의 위치를 전통적인 정현[섬서성 한성설]이나 왕숙[하북성 고안현설]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맥의 위치도 대체로 섬서성~하북성 북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추·맥이 요동지역의 예·맥과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이동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후의 한을 심재훈의 견해처럼 하북성 북부나 요령성 서남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추·맥의 위치도 이와 연동해서 비슷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기원전 9세기 이래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이 요령성 서남부지역인 대릉하유역에 있었고, 그 문화의 주체가 난하유역 고죽·영지의 以東지역인 대릉하유역에 있었던 예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¹⁾ 예맥사회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이 고조선이었기 때문에 한(성)의 위치와 고조선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39) 심재훈, 2007 앞의 논문.

40) 심재훈, 2007 앞의 논문, pp.277~278.

41)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원전 7세기 중반 예맥·고조선이 북주후의 일원이었고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조선후가 칭왕하였다. 또한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韓地에 가서 韓王을 자처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²⁾ 이런 점에서 서주 후기 한후가 추[예]·맥을 다스리는 北國의 伯이었다고 할 때 한후를 예맥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북주후의 일원이었던 조선후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서주 후기에 고조선이라는 정치체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좀더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춘추 중기 이전에 예맥사회의 통치자가 중원사회와 후의 자격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고조선 관련 중국 측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朝로 표현되는 고조선과 중원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접근해 보았다. 고조선은 주왕실로부터 北州侯의 일원으로서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제환공은 고조선과의 관계를 朝로 보았지만 고조선은 실질적으로 제와 대등한 교역관계를 맺었다. 이후 기원전 4세기 후반 조선후가 칭왕할 수 있었던 명분은 이미 춘추시기부터 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부터 중원제국에 후로 인식되었을까? 이 문제는 중국 측 사료에서 나타나는 고조선사의 상한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주 후기인 주 선왕대(기원전 827~782년) 작품인 『시경』 한혁편의 韓侯가 북주후의 일원이자 전국시기에 칭왕하였던 朝鮮侯와 연결될 가능성을

42)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짚어 보았다. 향후 『시경』 한혁편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본론에서 다루지 못한 사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逸周書』 王會解篇의 穢人·發人이다. 『일주서』는 대체로 전국시기 이후의 저작으로 알려졌지만 왕회해편의 내용은 서주 초기 成周之會와 관련된 것이다. 『시경』 한혁편의 한후를 고조선과 확실히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시기의 관념이 투영된 『일주서』를 통해 예·발[맥]과 주왕실과의 관계를 바로 서주 초기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중국 측 사료에 조공책봉으로 표현된 고조선과 중원제국과의 관계를 고조선의 입장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했다. 한정된 사료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론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고조선사 연구의 ‘모색’이란 점에서 나온 시도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투고일 : 2019.7.10

심사개시일 : 2019.7.16

심사완료일 : 2019.8.27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帝王韻紀』

『管子』, 『史記』, 『山海經』, 『三國志』, 『詩經』, 『戰國策』, 『春秋左氏傳』, 『漢書』

2. 논저

고조선사연구회·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김병준, 2010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 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김상기, 1948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김상기, 1987 『조공의 경제적 의미』 『고대한중관계사의 연구』, 삼지원

김정배, 1997 『고조선의 문화와 사회 경제』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철준, 1977 『고조선사회의 정치세력의 성장』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김한규, 1981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노중국, 1985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49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2018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재정 과 전망-』

박대재, 2005 『고조선의 ‘왕’과 국가형성』 『북방사논총』 7, 고구려연구재단

박대재, 2006 『고조선과 연·제의 상호관계』 『사학연구』 83

박대재,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박대재, 2018 『고조선사 체계의 재인식』 『한국학논총』 50

박선미, 2018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고조선사 연구동향-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박준형, 2004 『고조선의 대외교역과 의미-춘추 제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 박준형, 2013 「고조선의 춘추 제와 교류 관계」 『백산학보』 95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백산학보』 106
- 박준형, 2018 「예·맥 관련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112
- 박준형, 201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방향숙, 2005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 서영수, 1987 「삼국시대 한중외교의 전개와 성격」 『고대 한중관계사의 연구』, 삼지원
-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 신형식, 1978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한국사론1-고대편-』, 국사편찬위원회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한 모색-『詩經』 「韓奕」 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 여호규, 2006 「고구려와 모용연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여호규, 2019 「한국 고대사에서의 조공·책봉관계」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 오현수, 2013 「『詩經』 「韓奕」 篇의 韓城과 韓侯」 『백산학보』 96
- 와타나베 신이치로 지음 / 임대희·문정희 옮김, 2002 「天空의 玉座-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 이춘식, 1969 「조공의 기원과 의미」 『중국학보』 10
- 전해중, 1966 「한중조공관계고」 『동양사학연구』 1
- 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슬기, 2017 「衛滿朝鮮과 匈奴의 襜裘 교역」 『선사와 고대』 52

Abstract

A New Search for Gojoseon's Foreign Relations
: focused on the tribute–investiture system

Park, Jun–Hyoung

This paper is to scrutinize critically Chinese primary sources on Gojoseon concluding that Gojoseon and early states in China proper, whose relation has been referred to as “tribute–investiture system,” were in equal status in fact.

Early Chinese states recorded their relation with neighboring peoples in terms of “tribute–investiture system.” It is, however, mere a rhetoric employed to the relation; it was not a word of hierarchy in ancient East Asia. Rulers of Gojoseon, as one of Northern Marquesses 北州侯 maintained a titular “tribute–investiture system,” vis-a-vis the Zhou dynasty. Even though Duke Huan of Qi saw the relation between Qi state and Gojoseon in terms of tribute–investiture relation, Gojoseon, however, kept on an equal footing with Qi state. Gojoseon's antagonism against Yan state and its ensuing self–promulgation as a kingdom in the late fourth century BCE were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the ruler of Gojoseon had been regarded to be entitled a (northern) marquis since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n this context, it is plausible that Marquis of Han, who ruled Chu[Ye] 追[滅] and Mek 貊, was related with Marquis of Joseon, who politically grew up among Ye and Mek society and became one of Northern Marquesses 北州侯.

Key words : Gojoseon, tribute-investiture system, Marquis of Joseon, Northern Marquis, self-promulgation as king